

탈피

(단편 성장/ 드라마)

연출	윤예서
조연출	윤지원
제작	노유나
촬영	서민지
조명	안수경
미술	고유나
미술	김다영
음향	김지희
편집	임지섭

S#1 (자취방 안 / 오후 1시)

전쟁터 소리가 나고 나레이션이 나온다.

NA: 사는 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전쟁터 소리가 시끄러운 차 소리로 바뀐다

암막 커튼으로 거의 가려져 딱 빛 한 줄기가 들어오는 반지하 방
창틀에 얇게 눈이 깔려 있다.

종류별로 나누어 라면, 캔 콜라가 규칙적으로 높이 쌓여있다.
각자 자신의 이름이 적힌 네임택이 붙은 생기 넘치는 식물들이 가득하고
잡초들과 넝쿨들이 구석구석 자라있다.

넝쿨에 분무기로 물을 주는 손

멈춰있는 시계.

NA: 시간을 멈출 수 있다면 멈추실 건가요?

많은 LP와 소설책들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고.

테이프 철이 되어 있는 거울은 넝쿨이 삼킨 듯 뒤덮여있다.
쓰레기봉투엔 깨진 손거울들이 담겨있다.
개미 한 마리가 창틀 사이로 들어와 방을 기어 다니고 있다.

그때 들어오는 사람의 손

조심스레 개미를 잡아 손에 쥐어 얼굴 가까이 가져간다.
연주의 얼굴이 보이고,
개미에 집중 한 연주의 얼굴은 호기심과 애정이 가득하다.

개미가 있는 손을 다시 부드럽게 쥐고,
바닥의 잡초를 푹 째 피해 조심스레 창가로 가는 연주.

커튼을 여는 연주의 뒷모습이 보인다.
매미 소리와 뜨거운 햇빛이 쏟아진다.

NA: 우린 뭘 위해 버티고 버티는 걸까요

절로 인상이 써지는 연주
창문을 손이 나갈 수 있을 만큼만 열고 개미를 놓아준다.

변한 계절 속 변하지 않은 건 연주뿐이다.
현타와 무기력함 등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인 오묘한 표정이다.

입고 있던 가디건을 벗고 커튼을 더 닫는 연주.

NA: 이 모든 생각이 숨 막히게 고요해지는 곳 여긴 방공호입니다.

S#2 (자취방 안 / 오후 1시)

땡동!!

한 번도 놀린 적 없는 집에 초인종이 놀린다.
연주는 초인종 소리에 놀라 문 쪽을 바라본다.

NA: 말하기 무섭게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리네요.

땡동

서있던 그 자리에 쪼그려 앉는 연주.
두려운 표정으로 숨을 참는다.

택배 기사님: 계세요?? 저 이거 직접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말에 흠칫 놀라는 연주.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는 척
가만히 있을 뿐이다.

택배 기사님:..안 계시나..

멀어져 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완전히 소리가 안 날 때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조금 열고는 빠르게 받아온다.

평소 받던 택배와 뭔지 모를 박스 하나.

박스를 내려놓고 멍하니 바라본다.

운송장 동수는 맞지만 물에 젖어 흐릿해진 탓에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호수.
일단 뜯어보기로 한다.

조심스레 열어본 상자 속에는
작은 애완 가재 한 마리가 덩그러니 있다.
얼굴에 물음표가 한가득인 연주

봉투째 가재를 들어 올려 이리저리 살펴본다.

s#3-1 (반 지하 방 / 오후 3시)

방에 가장 끝과 끝에 멀리 떨어져 대치하고 있는 연주과 가재

호기심의 표정으로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이 이불을 돌돌 둘러싸고
경계하듯 노려본다.

이리저리 자리를 바꿔가며 가재를 관찰하다 가재와 점점 가까워지고
커튼에서 새어 나오는 빛 한 줄기가 시침처럼 움직인다. (시간 경과)

가재 바로 앞까지 온 연주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한다.

갑자기 방을 뒤지기 시작하더니 구석에
박혀 있던 먼지 쌓인 2G폰을 꺼낸다.

택배에 적힌 번호를 누르고
눈을 질끈 감은 채 통화 버튼에 손을 갖다 댄다..

뚜르르르르..

손톱을 물어뜯는 입

뚜르르르르르..

달달 떠는 다리

뚜르르르르르..

끊음 버튼에 손을 댈까 말까 하는 엄지손가락.

뚜르르..탈각

네~ 여...

여보세요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끊어버리곤
그냥 바닥에 내려놔 버린다.

아휴...!

한숨을 한 번 쉬고 마른 세수를 하는 연주.

가재 옆에 누워 빔프로젝터를 켜다.

바닷속 영상이 나오고 연주의 방은 파랗게 물든다.
마치 잠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연주

눈을 꼭 감고 손으로 코를 막으며 숨을 참는다.

연주의 얼굴 위로 물고기들 그림자들이 지나다닌다.

꼬르르륵...

더 깊게 잠수하는 연주
그때 거대한 그림자를 느끼고
눈을 뜨자
가재 그림자가 연주의 방 천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옆에 있는 가재를 쳐다보는 연주.

붕지 속 작지만 바쁘게 움직이는 가재
답답해하는 것 같은 가재의 모습은
애처롭게 느껴진다.

(회상 씬 몽타주/ 오후 6시)

(M-1) 연주가 쪼그려 울고 있다. 울고 있는 아이 앞엔
주황색 팔찌를 한 아이가 망토를 두르고 막대를 든 채 의기양양하게 서
있다

울고 있는 연주의 귀를 막아주고 눈을 감으라는 듯 자기 눈을 꼭 감았다
뜨는 아이

연주는 눈을 꼭 감고 어느새 푹 그쳐 배시시 웃으며 눈을 뜬다

(M-2) 골목길에 앉아 까르륵 웃으며 노을을 보는 연주와 그 옆을 뿔뿔
돌아다니는 아이 뒷모습

(M-3) 중학교 교복을 입은 채 골목길에 앉아 까르륵 웃으며 노을을
보는 연주와 그 옆을 뿔뿔 돌아다니는 아이 뒷모습

(M-4) 혼자 남아 노을을 보는 연주. 목줄을 잡고 구슬프게 흐느끼는

뒷모습이 보인다. 연주 뒷모습에서 주황색 목줄이 흘러나와 있다. (M-2
와 같은 구도.)

S#3-2 (반 지하 방 / 오후 3시)

(컷투)

빨빨거리며 움직이는 가재

표정이 굳는 연주

오후 6시에 멈춰있는 시계가 보인다.

시계를 힐끔 보곤

창문 앞에 선다

커튼을 조금 열고

고개를 빼꼼 내밀어 추억의 골목이 있는 방향을 우물쭈물 쳐다본다.

환청처럼 ‘ 여기서 여섯시에 보자 기다릴게! ’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창문을 열어볼까라는 생각에 손을 올려 조금 열어본다.

그때 들려오는 행인들의 웃음소리

급하게 닫고 뒤돌아선 연주의 표정은 슬픈 얼굴이다.

눈에 밝히는 가재

결국 양은 냄비에 물을 받아 가재를 풀어놓고는
책상을 대충 치운 뒤 컴퓨터 앞에 가재를 두고
앉아 본격적으로 컴퓨터를 할 준비를 마친 연주.
연주는 그 자리에 앉아 ‘가재’에 대해 검색해 보다
다음날까지 꼬박 밤을 샌다.

s#4 (반 지하 방 / 오전 11시)

-(시간경과)-

꼬물꼬물 해가 뜨도록 열심히 무언가를 만드는 연주.
피곤한 듯 꼬질꼬질한 얼굴을 하고 있다.

이어서 뿌듯한 표정으로 들어 올린 연주의 손에는
콜라 캔으로 만든 가재의 은신처가 들려있다.

양은 냄비, 구멍을 뚫어놓은 비닐 랩, 돌 대신 들어간 은박지
뭉치들까지 제법 사육장의 형태를 띠는 듯 보인다.

옆드려 잠들어 있는 연주
그 옆엔 양은 냄비 속 가재가 있다.

NA: 저에게도 방공호가 생겼습니다.

(냄비에서 시계로 디졸브)

s#5 (반 지하 방 / 오전 11시)

문 앞에 긴장한 듯 서있는 연주
연주는 멍동 소리가 들린 후엔 헤드셋을 써버리고
썸글라스로 눈을 가린다.

멍동!

한 움큼 쌓여있는 택배를 들고 온다.

게임을 하다가도

멍동!

NA: 왜인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탁! (택배 쌓이는 소리)
자려다가도 멍동!

탁! (택배 쌓이는 소리)

하루 종일 가재 어항 재료 택배를 받는다.
집 안에 택배박스가 점점 쌓여간다
정신 사나운 초인종 소리

겨우 숨을 고르고 좁아진 방에서 쭈그려 낮잠에 드는 연주

컴퓨터 앞 완벽히 셋팅된 어항이 있고
'핑핑이'라는 네임택이 붙어있다.

NA: 이름이 꽤 마음에 듭니다. 이제 탈피를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방-

잠이 든지 얼마 되지 않아
기척 소리에 놀라 눈을 뜨는 연주.

소리가 난 책상을 보자 위에는
언제 나왔는지 어항을 탈출해 책상 위를 기어 다니고 있는 가재.
깜짝 놀라 급하게 핑핑이를 어항에 넣는다.

NA: 놀래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탈출이 제 본능인 걸요

연주는 책상 앞에서
턱을 괴고 어항 속 가재를 구경한다
연주의 뒤편 참문이 걸린다.

집안으로 쑥 들어가 숨어있는 듯 보이는 가재.

이 둘은 어항에 반사되어 겹쳐져 보인다

하품을 하며 다시 잠을 자려다 방을 둘러보게 된 연주.

가재가 온 뒤 더욱 벽처럼 높이 쌓인 박스들과 쓰레기들.
연주의 물건들이 섞여 연주의 집이
꽤 찬다.

가재 때문에 완전히 포화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새삼 느낀 연주는
괜히 애꿎은 가재를 한 번 째려본다.

꼬르륵..

짜려봄에 대답하듯 보글보글 소리를 내는 가재.

연주는 툭툭 어항을 몇 번 두드리고는
다시 책상 밑으로 쏙 들어가 잠을 청한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는 비슷한 모습을 한 연주와 가재가 보인다.

#6 반 지하 방 (오전 12시)

잠이 오지 않는 연주 뒤척이다
심심한 듯 다시 어항을 바라보자
뒤집어져 있는 핑핑이를 발견한다.

놀라 다급히 다가가는 연주.

툭툭 건들어도 미동조차 없는 핑핑이.
아무래도 죽은 것 같아 보인다.

복잡 미묘해진 연주의 표정.
정말 죽은 걸까? 싶어
핑핑이를 손으로 건드려본다
여전히 미동도 없는 핑핑이.

M-4 회상 씬에서 연주가 주저앉아 울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추체를 못하고 연주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
연주는 어항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한다.

현관 앞에 모여 있는 식물들
화분에는 네임텍 흔적들이 있고
뜯긴 네임텍은 모조리 바닥에 떨어져 있다

연주의 방 안은 온통 생기가 없는 물건들로만 가득하다.

똑똑 연주의 몸에서 떨어지는 물들
좌절한 연주는 덧없이 초췌해 보인다.

어항을 가지고 어기적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
책상에 들어가며 실수로 빔프로젝터를 차고 빔프로젝터가 작동해 연주의
방을 파랗게 물들인다.

핑핑이가 든 어항을 옆구리에 끼고 잠으로 완전한 도망을 친다,
작게 들려오는 연주의 훌쩍 소리가
방 안의 적막을 채운다. 깊게 내려오는 넝쿨들.

#7 (꿈 속 / 오후 2시)

(꿈)

창가 쪽에서 주황 목줄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연주.

주황색 팔찌를 한 아이가 은은하게 웃으며 문을 두드린다.

깜짝 놀라 현관을 보려고 뒤를 도는 연주.

현관엔 연주의 키만큼 높이 쌓인 쓰레기 벽이 우뚝 서 있다.

살짝살짝 흔들리는 쓰레기 벽
벽 너머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

그때 쓰레기 벽 틈 사이로 쓰레기 벽을 쌓고 있는 또 다른 연주의
얼굴이 스친다.

쓰레기 벽에 당황해 어찌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다 굳어버리는 연주.

뒤집어진 핑핑이가 든 어항, 문 밖에 있는 아이의 웃는 얼굴

답답해 보이는 연주 초조한 얼굴이다.

뒤집어진 핑핑이가 크게 보이고,
아이의 노크하는 손이 보인다.

굳었던 연주의 발이 앞으로 갈 듯 말 듯 망설인다.

연주는 주먹을 꽉 쥐는다.

여전히 쓰레기 벽을 쌓고 있는 꿈속 또 다른 연주의 손.

입술을 꼭 깨물고는 쓰레기 벽에 돌진하기 시작한다.

쓰레기 벽을 허물고 현관 앞까지 가지만

문고리를 보곤 우뚝 서버린다.

가만히 문고리를 바라만 보고 있는 연주.

S#8 반 지하 방 (오후 5시)

잠에서 깬 연주는 어항을 꼭 붙잡고 있다.

누워서 본
방 안은 마치 정글처럼 넝쿨들이
무섭도록 가득 뒤덮여있고...
높이 쌓인 쓰레기와 물건들이 연주를 조여오는 느낌이다.

어항에 반사되는 연주의 얼굴

급하게 일어나 핑핑이를 옆구리에 끼고

가재를 한 번 더 바라보곤
비장한 걸음으로 문 앞에 선다.

문고리를 보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문고리를 잡는다.

쿵쿵쿵!
누군가 거칠게 문을 두드린다.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 노크 소리에 화들짝 놀라 눈이 커진 연주.
쿵쿵쿵!

연주의 표정은 놀람에서 곧 공포로 바뀐다.

택배기사: 계세요. 오배송 택배 다시 받으러 왔습니다.

얇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입을 막아 숨을 참는 연주.

급한 듯 숨을 고르면서 서있는 택배기사

뒷걸음질 치다. 인기척이 난다

문 밖에서 외시경을 들여다보는 택배 기사.

택배 기사: 가재 받으셨죠?? 오배송이라 돌려주셔야 합니다.

나가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쩔 줄 몰라 울상을 짓는 연주.

쿵쿵 !!!

쿵쿵쿵!!

빠---

이명 소리와 노크 소리가 겹쳐들리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연주는 급하게 헤드셋을 낀다.

연주 옆구리에 있는 가재.

우당탕탕!!

방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택배기사에게 들린다
어이없어 얼빠진 표정의 택배기사.

집 안에서 우왕좌왕 분주하게 움직이는 연주의 발이 보이고
선글라스에 반사된 본인을 보는 연주.
눈을 질끈 감는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현관문에 귀를 대고 있는 택배기사.
팍!
마침내 열린 문에 부딪힌다.

아픈 듯 머리를 만지는 택배기사 옆으로
무언가가 속- 빠르게 밀려 나온다.
테이프 칠도 안 되어 있는 택배 상자.

택배기사가 상자를 들어 올려 열어보려 상자 날개 부분을 잡는 순간

퍽! 튀어나오는 연주.
도망치듯 빠르게 달려 나온다.

놀란 택배 기사.
택배기사는 멀어져 가는 연주를 보다
품 안에 택배를 열다 만 다시 택배를 연다.

그 안엔 콜라 한 캔과 가재 인형이 들어 있다.

뛰고 있는 연주의 허리춤에는 물이 채워진 비닐봉투가 매달려있고
그 안엔 뒤집어진 핑핑이가 있다.

쿵.....쿵.....쿵.....!
발걸음이 마치 물속에서 걷는 것과는 같이 무겁다.

동시에 조금 줄어드는 집 안 넉쿨

#9 밤 (골목길 근처 / 오후 6시)

집 근처를 벗어난 연주

너무나도 오랜만에 맞아보는 시원한 바람.
내리찍는 햇볕에 우왕좌왕하는 연주.

오히려 지금 연주에겐 자극적으로 다가온다.
사람들과 자동차 바깥소리가 점점 커진다.

바닥을 보며 앞으로만 뛰는 연주.

바닥만 보며 걸던 연주는
결국 앞에 부딪히며 선글라스를 떨어뜨리고는 살짝 밟는다.

NA: 드디어 연주의 탈피각이 벗겨졌습니다.

멈출 듯 느려지는 연주의 발걸음.
그때 썩하게 들어오는 햇빛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

발걸음을 유지하며 자신의 발로 나왔다는 사실에 울컥한다.

길거리에 푸른 하늘, 흔들리는 나무, 들꽃들이 보인다.

울 것 같이 변하는 연주의 얼굴.

느리게 뛰며 손으로 햇빛을 가려보는 연주.
햇빛을 가렸다 땀다 할 때마다
연주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졌다가, 환한 빛을 받았다는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해를 가렸던 손을 떼자

아이와 추억의 골목길이 연주의 눈에 보인다.

우뚝 멈춰서는 연주.

멍하니 그 골목길을 쳐다본다.

하염없이 골목을 쳐다보는 연주.
연주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아이처럼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랫동안 펑펑 우는 연주.

#10 반 지하 방 (오후 2시)

활짝 열린 창문. 커튼이 시원한 바람에 휘날리고 햇빛이 환하게 연주의
방 안 전체를 덮는다.

이 전의 식물과 쓰레기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깔끔한 연주의 방에는

헤드셋을 쓰지 않은 채 누워 잠이 든 연주가 있다.
어항에는 탈피를 한 핑핑이가 보이고 옆엔 탈피각이 있다.
컴퓨터엔 가재 탈피 영상이 보이고
영상을 배경으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

엔딩크레딧 NA

가재는 탈피를 통해 성장합니다.

탈피의 과정은 가재에겐 위험천만 그 자체입니다.

먼저 위석이라는 징조가 보이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숨어버리죠.
은신한 가재는 먹이 활동도 중단한 채 살점 하나하나를 작아져 버린
갑옷에서부터 분리합니다.

살점을 다 분리한 가재는 열어놓은 갑옷 틈 사이로 말랑해진 몸을
열심히 움직여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말랑해진 살점이 단단하게 굳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먹고 먹히는 생태계에서 말이죠.

이 모든 과정이 단단한 가재에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가장 큰 위기를 견딘 후엔 성장한다..뭔가 익숙하지 않나요?